

참된 사랑이 있는 곳에는 슬픔의 파도가 있을 수 없다.

(디디 만모히니지가 몸을 떠난 날 밥다다가 들려주신 고귀한 말씀)

오늘 바바는 흔들림 없는 왕국에 대한 권리를 차지한 자녀들, 흔들림 없는 단계에 머물러 있는 승리하는 자녀들을 보고 있다. 지금 흔들림 없는 산스카르를 가진 것을 기반으로 너희들은 흔들림 없는 왕국을 보상으로 얻으려는 노력을 제일 먼저 하면서 매 사이클마다 흔들림 없이 지내왔다. 드라마의 사이클에서 제일 꼭대기에 위치한 합류시대에 안정해 머물면서 역사의 모든 장면을 지켜본다면 너희는 자동적으로 흔들림 없고 부동한 상태로 머물 것이다. 격변은 오직 너희가 꼭대기 지점에서 내려와야만 비로소 생긴다. 브라민인 너희 모두, 고귀한 영혼인 너희들은 어디에 사느냐? 사이클에서 합류시대는 최고로 높은 시대다. 그림에서 보면 합류시대는 제일 꼭대기에 보이고, 시대라는 측면에서는 제일 작은 시대로, 하나의 점이라고 불릴 것이다. 제일 높은 그 지점에, 최고로 높은 곳, 가장 고귀한 단계에, 이 고귀한 지식을 가지고서 높은 중에서 최고로 높은 아버지를 기억하며 머문다면, 높은 중에서 최고로 높은 봉사를 하면서 기억의 화신 상태로 머문다면, 너희는 변함없이 강력한 상태로 머물 것이다. 힘이 있는 곳에는 일체의 낭비가 영원히 끝난다. 브라민들 모두 낭비를 끝내려고 노력하고 있다. 낭비의 계좌와 낭비의 카르마의 계좌는 이미 끝나지 않았느냐? 아니면 아직도 일부 낭비의 오래된 계좌가 남았느냐? 브라민으로 태어났을 때 너희는 “몸, 마음, 부는 모두 당신의 것입니다”라고 약속했다. 그러므로 너희가 전능한 아버지에게 마음을 모두 주었기 때문에 낭비적인 모든 생각은 끝이 났다.

지난 2, 3일간 너희는 마음이 바바에게 속하지 않고 너희 스스로에게 속하도록 만들지는 않았을 테지? 수탁 관리인들은 마음속에 끊임없이 강력한 생각을 가지라는 지시를 받아왔다. 그러니 낭비적인 무언가의 여지가 있겠느냐? 너희가 낭비적인 생각을 가졌느냐? 너희는 사랑을 보여줬다고 얘기할 것이다. 너희들 모두 가족의 사랑이라는 끈에 묶여져 있는데 그것은 아주 좋다. 만일 너희가 진주 같은 사랑의 눈물을 흘린다면 그 진주는 값을 매길 수 없이 귀중해졌을 테지만, “왜?”나 “무엇을?” 같은 낭비적인 생각의 눈물을 흘린다면 그것은 낭비의 계좌에 쌓일 것이다. 사랑의 진주는 너희가 사랑하는 디디지의 목에 걸린 반짝이는 화환이 되게 했다. 그렇게 참된 사랑으로 이루어진 여러 개의 화환이 디디의 목둘레에 걸려있다. 하지만 너희가 단 1%라도 격변의 단계에서 눈물을 흘렸다면 그것들은 디디에게 도달하지 못했다. 어째서냐? 그녀는 변함없이 승리하며 흔들림 없고 부동한 영혼이었고, 심지어 지금도 그러하므로, 격변을 겪는 자들의 기억은 흔들림 없는 자들에게는 도달할 수 없다. 그것은 그저 여기에만 머문다. 그것들은 화환의 진주나 광채가 될 수 없다. 어떤 영혼의 단계나 위치가 뭐든, 그와 똑같은 단계와 위치에 있는 다른 영혼들의 기억만 그 영혼에게 도달한다. 너희는 사랑을 가졌고 이것은 아주 좋은 징표다. 그녀를 사랑한다면 너희들의 사랑을 바쳐라. 참된 고귀한 사랑이 있는 곳에는 슬픔의 파도가 있을 수 없는데, 너희들은 이미 슬픔의 나라를 초월했기 때문이다.

다정한 불평마저 모두 여기에 도달했다. 모든 이의 불평은, “우리들의 다정한 디디지가 어째서 불리었습니까?”라는 것이었다. 밥다다가 이르는데, 모든 이가 참으로 사랑스럽게 여긴 분이니 아버지도 역시 그녀를 사랑스럽게 여겼을 것이다. 만일 다정함이 필요하다면 누가 불리겠느냐? 전체 모든 이들 가운데서 최고로 다정한 이일 것이다.

너희들 모두, 선발대에 속하는 특별한 영혼들이 왜 아직껏 알려지지 않고 은밀한지 생각하며 되풀이해서 질문할 것이다. 너희는 그들이 드러나기를 바라지 않느냐? 때에 따라서, 선발대에 속하는 영혼들 중 일부는 고귀한 영혼들을 불러내고 있다. 본연의 변화라는 특별한 과제에 본래의 보석인 영혼들이 필요하다. 각자 요가의 힘으로 실험할 수 있는 특별한 요기 영혼들이 필요하다. 행운의 공여자의 동업자인 영혼들이 필요하다. 심지어 브라마도 행운의 공여자라고 불린다. 그녀가 어떻게 부름을 받았는지 너희는 이해하느냐? 너희는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날 지에 대해 생각하느냐? 아버지 브라마가 아비약트가 되었을 때 너희는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보았다. 너희는 다디가 이제 혼자라고 생각하느냐? 그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너희들 모두 그 생각을 한다. 그렇지 않느냐? (다디지에게 신호를 보내시면서.) 너희들은 “신성한 하나 됨” (사카르 시절의 그룹들 중의 하나) 그룹을 결성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너희는 신성한 하나 됨 그룹에 속하는 자들의 팔들을 갖고 있지 않느냐? 신성한 통일을 이루지 않았느냐? 그 그룹이 왜 결성되었느냐? 너희들끼리 서로 협조하기 위해서였다. 너희가 원할 때면 언제든지, 누구를 불러내든, 모든 이가 봉사할 준비가 되어있다. 다디들은 서로에 대해 마음속에 크나큰 사랑을 갖고 있다. 너희들 중 어느 누구도 그것에 대해 모르기 때문에, “이젠 어떻게 될까요?”라고 묻는다. 디디 혼자서만 본래의 보석인 너희들 모두가 하나라는 것을 증명했다. 그녀는 이것을 보여주지 않았느냐? 아버지 브라마가 가시고 난 후에, 육신의 형태로 숭배받을 가치 있는 아홉 보석이 봉사의 장에서 스스로 드러났다. 그래서 아홉 보석들, 또는 염주의 여덟 보석은 한결같이 서로 협조하고 있다. 여덟 구슬의 염주에 누가 들어 있느냐? 봉사에서 책임을 맡은 자들은 아르주나다, 즉 여덟 구슬의 염주의 일부다. 그래서 특별한 여덟 보석, 또는 아홉 보석은 봉사의 무대 위에서 각자의 배역을 연기하고 있으며, 너희가 제 배역을 연기하는 것은 곧 너희의 배역과 등수를 드러내는 일이다. 밥다다가 그냥 그렇게 등수를 매기지는 않을 테고, 너희의 등수를 드러내는 것은 너희들 각자의 역할이다. 그래서 여덟 보석은 변함없이 서로 사랑하며 협조한다. 이런 이유로 초창기부터 봉사에 협조해온 영혼들은 늘 계속해서 협조하는 배역을 연기할 것이다. 이해하느냐? 다른 질문이 또 있느냐? 왜 너희들에게 미리 알려주지 않았느냐고 묻겠느냐? 만일 바바가 이 얘기를 미리 들려줬다면 너희는 디디와 요가를 하는 요기들이 되었을 것이다. 드라마의 배역은 독특하고 (비치트라, 형상 없는), 뭔가 형상이 없는 것은 사진으로 찍을 수 없다. 격변이라는 시험지는 갑자기 오고, 심지어 지금도 이 특별한 영혼은 하나의 역할을 맡고 있다, 즉 그녀의 배역은 이미 가버린 영혼들에게 사랑스럽고 독특하다. 너희는 모든 분야에서 이 고귀한 영혼의 동반과 협조를 계속 경험할 것이다. 아버지 브라마에게는 그만의 고유한 역할이 있고, 그녀의 역할은 그의 역할과 같을 수 없다. 하지만 이 영혼의 특질은 항상 봉사하려는 열성과 열의를 주는 것이었고, 남들을 요기이며 협조하게 만들어서 그들이 실험하게 만드는 것이었다. 이런 이유로 이 영혼의 특별한 산스카르는 시시때때로 협조하는 상태로 머무는 경험을 너희 모두에게 줄 것이다. 모든 영혼에게는 각자만의 독특한 배역이 있다. 앗차.

너희는 마두반에 와서 너희들의 사랑의 형태를 보였으며 세상에 봉사하는 너희의 배역을 연기했다. 너희 모두 사랑의 파도를 퍼뜨리고 사랑의 향기와 사랑의 광선을 퍼뜨리려고 여기에 왔다. 그러므로 환영한다! 디디지를 대신해서 밥다다가 모든 이의 사랑과 봉사에 대해 축하하고 있다. 디디도 역시 이것을 지켜보고 있다, 그녀는 TV 앞에 앉아있다. 너희들 역시 서를 리전에 가면 그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봉사의 도장 (스탬프)이기도 하다.

바바는 또 이 집회에서 카말 (디디의 올케) 딸을 기억했다. 그녀 역시 너희를 기억하고 있으며, 사랑하는 고귀한 영혼들에게 협조해준 이들 모두를 기억하고 있다. 피곤을 모르는 자녀들 모두, 그들이 여기에 앉아있든 그렇지 않든, 너희들 모두 한 분에게만 좋은 염원과 순수한 감정의 사랑을 보여주었다. 그것도 역시 참으로 고귀했다. 그것을 위해서 특별히 디디는 밥다다에게,

“저를 대신해서 그렇게 사랑하며 봉사할 줄 아는 가족들에게 특별한 기억과 감사를 드려주세요”라고 했다. 그래서 오늘 밥다다는 디디의 바람대로 실행하고 있다. 오늘 밥다다는 메시지 전달자로서 메시지를 하나 전하고 있다. 드라마에서 일어난 일은 뭐든 중요한 의미로 가득하다. 너희들 모두 디디를 사랑하고, 디디는 봉사를 사랑했다. 그렇기 때문에 봉사가 그녀를 끌어당겼다. 일어난 일은 뭐든지 전체 모든 일들 중에서 최선이었고, 변화의 수많은 커튼을 열기 위한 것이었다. 그것은 바그와티 (의사)의 잘못도 아니고 신의 잘못도 아니었다. 이것이 곧 드라마의 비밀이다. 이에 대해서는 바그와티 (의사)도, 바가완 (신)도 어떤 것도 할 수 없다. 의사가 이런 일을 했다거나 그 수술을 했다는 생각은 결코 하지 마라. 그런 생각은 아예 하지 마라. 그녀가 마지막까지 준 사랑은 어머니의 사랑이었다. 그러하므로 그녀로서는 행하는 데서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이것은 드라마의 공연이다. 이해하느냐? 그러므로 다른 생각은 아무것도 하지 마라.

오늘 나는 단지 순종하여 디디를 대신해서 메시지를 전하려고 메신저로 왔을 뿐이다. 흔들림 없는 단계에 안정해서 머무는 자들 모두에게, 흔들림 없는 왕국에 대한 권리를 이미 차지한 자들에게, 지각에 믿음을 갖고 있으면서 태평하게 머무는 자들에게, 승리하는 자녀들에게 트리무르티의 사랑과 기억과 나마스테. 앗차.

밥다다가 다디들을 무대 위로 다 불러서 반원을 이루며 둘러앉게 했다 .

신성한 통일 그룹이 여기 왔다. 염주가 만들어진 게 아니냐? (다디지에게 말씀하시면서.) 지금 이 사람 (다디 장키)과 이 사람 (다디 찬드라마니)이 너희들에게 특별히 협조적인 영혼들이다. 이수레 (굴자르 다디)는 2중의 역할을 맡고 있다, 즉 밥다다의 배역과 이 배역, 그렇게 2중의 배역이다. 모든 이가 다 너에게 협조한다. 날씨가 좋으면 이 사람 (다디 니르말 샨타, 브라마 바바의 육신의 딸)을 불러라. 너희들 모두 날아다니는 새들이 아니냐? 너희에게는 봉사의 굴레가 아무것도 없다. 자유로운 새들은 너희가 손뼉을 치자마자 날아간다. 그렇지 않느냐? 너희는 자유로운 새들이다, 너희는 어떤 특별한 장소나 특별한 봉사에 묶여 있지 않다. 세계에 대한 봉사와 무한한 봉사의 굴레가 있다. 그래서 너희는 자유롭다. 어디서든 언제든 필요가 생기면 “제가 먼저”라고 말해라. 너희 각자에게는 고유한 배역이 있다. 신성한 통일 그룹은 부양해주는 그룹이며, 마노하르 단체는 봉사의 장에서 전진하는 그룹이다. 지금은 봉사와 더불어 특별히 부양할 필요가 있다. 많은 영혼들이 부양의 차원에서 디디를 어머니로 본 것과 마찬가지로, 어머니이며 아버지인 분은 한 분뿐이다. 육신의 형태로 이 배역을 연기하는 도구였기 때문에, 그녀는 부양해주는 특별한 배역을 연기했다. 마찬가지로 본래의 보석들은 부양해줘야 한다, 너희는 영혼들이 아버지에게 부양 받을 권리를 차지할 수 있게 부양해줘야 한다. 너희가 받아야 하는 것은 아버지의 부양이지만 너희는 그것을 받을 가치 있게 되어야 한다. 그래서 이 영혼 (디디지)은 영혼들을 그렇게 가치 있게 만드는, 아주 훌륭한 1등의 봉사를 했다. 그러니 너희들 모두 1등이 아니냐? 너희는 두 번째 염주에 속해 있지 않을 테지? 너희는 첫 번째 염주에 들어 있지 않느냐? 이처럼 첫 번째의 염주에 속한 너희들 모두 1등이 아니냐? 앗차. 판다바들을 불러라!

주된 시니어 형제들 모두 무대에 올라 밥다다 앞으로 갔다 .

판다바인 너희들도 역시 본래의 보석들이 아니냐? 판다바들도 역시 염주에 들어 있다, 삭티들만 염주에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판다바들도 역시 거기에 들어있다. 너희는 제 스스로를 어떤 염주에서 보느냐? 너희들 모두 이를 알고 아버지도 역시 이것을 알지만, 판다바인 너희들도 역시 특히 이 기억의 염주에 속해 있지 않느냐? 너희들이 누구냐? 누가 자아를 이해하느냐? 판다바들 없이는 어떤 과제도 달성될 수 없다. 삭티들이 힘을 가진 그 정도만큼 판다바들도 역시 무한한

힘을 갖고 있고, 그래서 팔이 넷 달린 형상이 보여진다. 결합된 형태, 즉 너희들 둘이 하나로 결합된 형태로 봉사의 과제에서 성공을 거두고 있다. 단지 다디들만 특별한 여덟 신인이라거나, 또는 그들이 아홉 보석이라고만 생각하지 마라, 판다바들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해하느냐? 변함없이 이만큼의 책임의 왕관을 쓰고 있어라. 너희는 늘 왕관을 갖고 있지 않느냐? 너희들 모두 서로 협조한다. 너희 모두 아버지의 팔들이고, 다디들에게 협조하는 영혼들이며, 육신의 형태를 가진 도구들이다. “우리 모두 하나입니다”라는 하나의 구호는 끊임없는 성공의 수단이다. 너희들은 산스카르들을 서로 조화시키는 춤을 추는 자들이다. 너희는 한결같이 매 생마다 고귀한 영혼들의 집회에서 이 춤을 계속 출 것이다. 너희가 여기서 춤을 출 때, 그것은 너희가 변함없이 연기할 어떤 배역을 의미하느냐? 너희는 항상 고귀한 영혼들과 친구일 것이다. 너희는 그들의 친척이 될 것이다. 너희는 아주 가까운 친척이 될 것이고, 또 친구이며 친척으로서 함께 어울릴 것이다. 너희 모두 친구들이고 또 친척들이기도 할 것이다. 따라서 너희는 도구들이다. 이것이 디디와 나는 진심의 대화였다. 그러므로 너희 샹티들과 판다바들 모두 슈리마트라는 꽃다발 속의 꽃이 되었다. 너희들 모두 디디에 대한 특별한 사랑을 갖고 있지 않느냐? 앗차.

오늘, 나는 그냥 그렇게 만남을 축하하려고 왔다. 그래서 나는 지금 작별하고 있다. (다디지가 밥다다의 앞에 보그를 차렸고 바바가 말씀하심.) 오늘 나는 그저 너희들 모두를 공식적으로 만나려고 왔으니 보그를 받지 않겠다. 먼저 자녀들이 그것을 받게 해라, 그 다음에 아버지가 받겠다. 우리는 계속해서 또 다시 만나 먹고 또 서로 먹여줄 테지만 오늘 나는 디디의 메신저로 왔다. 메시지를 전해주고 나면 메신저는 떠난다. 디디는 나에게 다디와 악수해달라고 청했다. (밥다다는 다디지와 악수를 하고 나서 서틀 리전으로 날아갔다.)

Blessing: 너희의 불멸하는 옥좌와 마음의 옥좌에 앉아서 주인인 너희의 지시에 따라 너희의 신체감각들을 사용해라.

“나는 불멸하는 옥좌에 앉혀진 영혼이다, 즉 나는 자아의 군주인 왕이다.” 왕이 그의 옥좌에 앉아 있을 때 그의 일꾼들은 모두 그의 지시에 따라 모든 것을 다 한다. 옥좌에 앉음으로써 너희들의 신체감각들은 너희의 지시에 따라서 모든 것을 자동적으로 다 한다. 불멸하는 옥좌에 앉아있는 자들은 언제나 아버지 마음의 옥좌를 가지는데, 왜냐하면 너희 스스로를 영혼이라 여김으로써 너희는 아버지를 기억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몸도, 육신의 친척들이나 소유물도 없고, 아버지 한 분만이 너희의 세계다. 그러한즉 불멸의 옥좌에 앉아 있으면 너희는 자동적으로 아버지 마음의 옥좌에 앉혀진다.

Slogan: 식별하는 힘, 결정하는 힘, 수용하는 힘을 익히는 것이 거룩한 백조가 되는 길이다.

*** 옴 산티 O M S H A N T I ***